

## 연주곡 해설 <1부>

### 1. 메이 아리랑

원곡은 '정선 아리랑'으로서, 작곡·역 이원주 곡임. 사랑하는님이 떠나가는 아픈 이별의 마음을 십리도 못가서 발병이 날 거라고 원망의 마음을 노래하면서도, 꿈에도 잊지 못하는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이다.

### 2. Tristezza

폴란드의 낭만주의 작곡가 쇼팽의 피아노 작품 에튀드 op. 10의 no. 3 <이별의 곡>으로서, 가락이 너무 아름다워 가사를 붙인 노래임. 쇼팽이 첫사랑을 떠나보내고 만든 곡이며,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했을 때의 감정을 노래로 표현하였다.

### 3. Nessun dorma (아무도 잠들지 말라)

오페라 <투란도트>는 중국을 배경으로 한 오페라다. 공주 '투란도트'가 청혼한 남자들에게 3개의 수수께끼를 내고, 풀지 못하면 목을 베어버린다. '칼리프'가 정답을 모두 맞춰 공주와 결혼할 수 있게 되었으나, 오늘 밤 안으로 자신의 이름을 맞추면 목을 내놓겠고, 그렇지 못하면 자신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고 호기롭게 제안한다. 투란도트는 베이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Nessun dorma(아무도 잠들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다. 칼리프는 내기에서 이길 것을 확신하고 "...새벽이 되면 나는 이기기..."라고 노래한다.

### 4. Dicitencello vuie (그대에게 내말 전해주소)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용기가 없어 직접 고백을 하지 못하지만, 친구에게 자신의 애절한 사랑을 전해달라고 하는 아름답고 간절한 곡이다. / 그대에게 나의 맘을 털어놓고 싶지만, 난 어찌할 바를 모르다오. 내가 얼마나 그대를 사랑하는지, 내 말을 전해주소. 결코 잊을 수가 없다고. 이 열정은 사슬보다 더 강해서 내 영혼은 고통으로 살 수가 없다오. 당신을 많이 좋아하오.

### 5. 벚꽃나무 아래

하얗게 꽃피운 고운 나무는 더 하얗게 기다리는 저 고운 손보다 더 빛나네 / 수줍게 얼굴 붉힌 벚나무는 나지막이 찬바람 뒤에 숨어서 그대를 노래해 언제까지나 / 노래는 바람 타고 흘러 꽃잎은 내 노래에 잠기네 곁에 잠겨 / 두 눈을 감고 마음을 열면 아득한 저 하늘 가장 깊은 곳 그곳까지 나를 데려가네 / 부르고 또 불러 흐르고 또 흘러 꽃잎은 세상 가득 하얗게 가득 채워지네 / 그대 마음에도 내 마음에도 하얗게 더 하얗게 가득 날리네

### 6. Barcarolle ("호프만의 이야기"중 뱃노래)-Offenbach

호프만이 사랑했던 세 여인과의 이야기인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중 3막에 나오는 곡으로, 오페라에서 역할은 남성과 여성 듀엣이지만 실제 연주는 남성한 메조소프라노가 남성의 역할을 한다.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의 OST로 사용되어 큰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 / 아름다운 밤, 사랑의 밤이며, 우리의

모퉁이에 미소지어라! 낮보다 더 달콤한 아름다운 사랑의 밤이며! 시간은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이 쏜살같이 흘러가고 우리의 애정을 실어 가버리지. 산들바람이며 우리를 뜨겁게 쓰다듬어주소.

### 7. Die Forelle (송어)

1절: 물가에서 마치 화살처럼 재빠르게 물속을 노니는 송어를 노래한. 피아노 반주는 송어의 경쾌한 움직임을 즐겁고 흥겹게 연출/2절: 낚시꾼이 등장하여 이 평화로운 정경을 헤치려고 하지만, 화자(성악가)는 낚시꾼이 송어를 잡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3절: 음악이 갑자기 장조에서 단조로 전환되며, 송어가 낚시꾼에게 잡히고 화자는 낚시꾼에게 '배신당했다고 함./슈베르트가 생략한 슈바르트의 시 원작 4연은 소녀들에게 낚자들이 얼마나 교활한지, 그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마치 송어처럼 그들의 낚시질에 걸려 피를 흘릴 것이라고는 경고하는 내용이다.

### 8. Greig: Solveig's Song (솔베이지의 노래)

노르웨이 그리그(Edvard Grieg)의 <페르귄트(Peer Gynt)>는 세계 곳곳에서 여행과 모험을 하며 부귀영화와 환락을 경험한 페르귄트가 비참하게 몰락한 후, 고향으로 돌아와 그를 기다리던 옛 연인인 솔베이지의 품에 안겨 죽는다는 이야기이다. '솔베이지의 노래'는 <페르귄트> 중 가장 대표적인 곡으로, 페르귄트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솔베이지의 영원하고 아련한 사랑 노래다./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가겠조. 그러나 언제나 그대가 돌아오실 거라 굳게 믿고 있어요. 난 약속대로 그대를 기다릴 겁니다. 아~ 신이며, 그대가 어디에 있는 힘을 주소서. 신은 그대가 그의 발아래 서 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대가 하늘에서 날 기다린다면 우린 만날 겁니다.

### 9. 서시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 사이의 간극에 괴로워하지만, 시인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는 윤동주님의 내적 갈등을 장조와 단조를 오가며 표현한 곡이다. 피아노 파트가 전주에서 '이상적 자아'인 '별'이 반짝이는 모습과 '현실적 자아'인 '별뿔별'이 떨어지는 모습을 묘사해준다.

### 10. Der Erlkönig (마왕)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시를 슈베르트가 18세에 읽고 단숨에 써 내려간 가곡이다. 이 노래는 한 곡에 다양한 음색과 성격을 나타내는 다채로운 곡이다. 전체를 담담하게 묘사하는 해설자, 현 상황을 이성적이고 사실적으로 바라보는 아버지, 고음의 미성으로 아들을 꾀어내려는 마왕, 그 마왕을 보고 이성을 잃은 아들의 목소리까지 그 모든 표현이 피아노의 강렬한 트레몰로 속에서 아우러지고 있다. 아들은 울부짖으며 발버둥치지만, 결국 마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다.

## 연주곡 해설 <2부>

### 1. Auf flügeln des Gesanges

'노래의 날개 위에'는 영화 <설국열차>에서 극 중 바이올리니스트가 독주로 연주한 곡이기도 하다. 유토피아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하이네의 시에 곡을 붙인 것으로서, 처음부터 가사가 있는 가곡이었으나, 연주회에서 가곡으로 연주되는 일은 드물고, 바이올린, 피아노 등 여러 악기로 연주되고 있으며, 독일 가곡 가운데 걸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 2. E lucevan le stelle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제3막에 나오는 아리아다. 정치범 탈옥수를 도운 죄로 고문을 받다가 경찰서장에게 항의해 사형을 선고받은 카바라도시가 그의 연인 토스카에게 쓰는 눈물의 작별 편지다. / 별은 빛나고 땅은 향기를 뿜건만, 문의 삐걱임, 흠을 스치는 발자국, 향기로운 그녀가 들어와 두팔에 쓰러져 안긴다. 애 달콤한 입맞춤, 부드러운 손길, 내가 떨고 있는 사이 그 아름다운 것들은 베일에 가려지듯 사라지고, 내 사랑의 꿈도 영원히 사라지는가, 모든 것이 떠나가고, 절망 속에 나는 죽어가네, 내 생애 전부만큼 난 사랑하지 못하였네.

### 3. Dove sono i bei momenti

<피가로의 결혼> 3막에 나오는 아리아로, 백작 부인이 남편인 알마비바 백작이 하녀 수잔나에게 "초야권"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시절의 아름다움과 빛나던 사랑의 맹세를 추억하며, 남편의 사랑이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희망하는 아름답고 훈훈한 곡이다.

### 4. Granada

스페인의 알함브라궁전이 있는 도시 그라나다를 소재로 하여 멕시코의 음악가 아구스틴 라라(Agusti Lara: 1897~1970)가 1932년에 발표한 노래이다.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의 옛 도시인 그라나다의 풍물과 춤추는 아가씨의 모습 등을 그리고 있는 노래로, 작곡자의 동경과 연민을 담고 있기도 하다. / 그라나다, 꿈에 그리던 땅이며! 그대를 위해 부르는 내 노래는 집시의 노래가 되고~ 그라나다, 해질녘이면 투우의 피로 물드는 땅이며~그라나다, 그대의 대지는 정열적인 어여쁜 여인들로 가득하네.

### 5. I dreamt I dwelt in marble halls

오페라 <보헤미안 걸>은 사랑도 없고, 아버지도 찾는 해피엔딩 오페라다. 백작의 딸 아를리네는 6세에 아버지를 따라 사냥을 나갔다가 홀로 떨어져 집시들에게 길러지게 된다. 성인이 되어 귀족 출신 망명 군인 타데우스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집시 여왕과 삼각관계에 빠졌다. 여왕의 계략으로 법정에서 서게 되었으나, 재판관이었던 아를리네의 아버지가 잃어버린 딸을 알아보고 딸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시킨다. / 이 아리아는 '나는 꿈을 꾸었는데, 거대한 대리석 궁전에서 많은 하인들이 내게 시종들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화려하게 지냈다. 그런데 전

혀 이상하지 않고 당연하게 느껴졌으며, 매우 익숙했다. 그중 가장 매력적인 내용은 당신이 나를 사랑했으며, 지금도 사랑한다고 말한 것이었다.'라는 내용이다.

### 6. Non Ti Scordar Di Me (나를 잊지 말아요)

이탈리아 영화 <물망초>의 OST로 사용되어 화제가 되었던 곡이다./춤고 해도 없는 이 땅에서 제비는 떠나갔네. 보랏빛 향기로온 꿈을 찾아 사랑스럽고 행복한 보금자리로. 나의 정든 작은 제비도 이별의 키스도 없이, 한마디 말도 없이 내 곁을 떠나갔네.

### 7. Nella Fantasia

영화 "미션" 테마곡. "나의 환상 속에서 모두 평화롭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유로운 영혼을 꿈꾸고 밤이 어둡지 않고 인간다운 자유로운 영혼의 빛나는 세계를 꿈꿉니다"의 내용이다.

### 8. Belsatzar (성경: 바빌로니아 최후의 왕)

자정이 되고, 바빌로니아의 마지막 왕 벨사살은 신하들과 함께 만찬을 벌인다. 만찬이 무르익어갈수록 벨사살 왕의 광기는 고조되고 성배를 들고 하늘을 향해 '나는 바빌론의 왕이다!(Ich bin der König von Babylon!)'라고 외치며 신성모독을 하기에 이른다. 자신의 행동에 두려움을 느낀 왕 앞에 홀연히 공중에서 하얀 손이 나타나고 알 수 없는 글씨를 써 내려간다. 그리고 그날 밤 왕은 신하들에게 살해된다.

### 9. 향수

대한민국의 대표적 서정 시인 정지용의 시로 한때 납북과 사인이 모호하여 금기시 되었으나, 1988년 해금되어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었다. 향수는 정지용의 고향(충북 옥천)을 배경으로 일본 유학시절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로 대중음악을 많이 작곡한 김희갑님의 작곡으로 (고)이동원 가수와 테너 박인수가 불러 유명하다.

### 10. Time to Say Goodbye

원래 안드레아 보첼리의 솔로 앨범에 들어있던 곡으로 <Con Te Partiro(그대와 함께 떠나리)>였다. 사라 브라이트만의 제안으로 듀엣으로 부르면서 제목을 Time to Say Goodbye로 바꿔 발표하였다. 제목은 작별 노래인 것 같지만 내용은 당신과 함께 새로운 나라로 떠날거라는 희망을 담고 있는 노래이다.

### 11. Inflammatu et accensus

'Inflammatu et accensus(최후의 날)'은 로시니의 <Stabat Mater(슬픔의 성모)> 제8곡 합창과 소프라노이다. / 심판 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여! 당신 백성들을 기억하시옵소서. /구하실 이 주님 뿐, 우리 구원하소서. / 천국으로 인도하사, 주께 충성 바치리다. 영원토록 거하리.

# 미오칸또 제4회 정기연주회

## Il mio canto

2022. 9. 30<sup>Fri</sup> 7:00<sup>PM</sup>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명인홀



#### 지도강사 이인화

전북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 교육학 박사  
일본 Tchkuba시 시립오페라단원, 전주오페라단원  
US. Oregon State University Visiting Scholar  
오페라 "카르멘" 카르멘역, "피가로의 결혼" 백작부인역 등  
국내 독창회 3회, 미국 독창회 2회, 국제음악회 등 출연  
전북대, 전주대, 군산대 시간 강사 및 겸임교수 등 역임  
현) 전북동화중 재직



#### 피아니스트 김지현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대학원 졸업  
드림 청소년 오케스트라 및 puro suono  
정기연주회 등 다수 출연

현) 앙상블 APM, 앙상블 숲 회원 및 연주자

현) 완주군 여성합창단 반주자



#### 피아니스트 최근정

서울시립대학교 음악과 졸업  
Italy Tarquinia Musica Accademia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차이코프스키 국립음대 초청연주, 록셈부르크  
국립음대 초청연주, 독일 Mettlach 초청연주

현) 충남예고 출강 및 침례신학대 교회음악과반주

주최 · 주관 | 전라북도교원성악동아리 미오칸또



## 인사말



회장 이현곤

미오칸토(MIO CANTO)는 이탈리아어로 ‘나의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노래를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2019년 6월에 만나 교원성악동아리 ‘미오칸토’를 창단하고 2019. 10. 31. 첫 연주회를 실시한 이래, 벌써 횡수로 4년이 되었습니다.

전 단원들은 해마다 최선을 다해 기량을 연마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특히 작년에는 연가곡 <겨울나그네>라는 어려운 곡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양상블’ 중심으로 아름다운 선율을 준비하였기에 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 단원들이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작년보다 향상된 면모를 눈여겨 봐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제4회 연주회가 더 나아가 10회, 20회의 밑거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참석해주신 청중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미오칸토’의 노래와 함께, 깊어가는 이 가을 저녁을 편안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 단원소개

소프라노	김종순/봉서중 오지원/삼계초 이숙화/김제중앙초	박옥조/전주만성초 이미란/전주서원초 이소연	박지숙/고산고 이숙영/대리초 조연순/군산중앙초
메조소프라노	차지향/전주공업고		
테너	강규완 오윤수/전주장동초	강상호/전주공업고 이현곤/정음호남중	김신철/군산옥구초
바리톤	최호은/전주만성초		

## 1부

이원주	May Arirang	Sop. 이미란 Ten. 김신철
F. Chopin	Tristezza(슬픔)	Sop. 박지숙 M.S. 차지향
G. Puccini	Nessun dorma(아무도 잠들지 말라) from Opera Turandot	Ten. 김신철
C. R. Falvo	Dicitencello vuie (그대에게 내말 전해주오)	Ten. 이현곤 Sop. 이소연 Sop. 김종순
이원주	벚꽃나무 아래	Sop. 오지원 Ten. 강상호
J. Offenbach	Barcarolle(벚노래) from Opera Les Contes d'Hoffmann	Sop. 이숙영 M.S. 차지향
F. Schubert	Die Forelle(송어)	Sop. 조연순 Sop. 박옥조 Ten. 오윤수
A. Grieg	Solveigs Lied(솔베이지의 노래)	Sop. 이숙영 (Tr. 강상호)
이인화	서시	Sop. 박지숙 Ten. 강규완
F. Schubert	Der Erlkönig(마왕)	Sop. 박옥조(해설) Bar. 최호은(아버지) Sop. 오지원(아들) Ten. 강규완(마왕)

## 2부

F.Mendelssohn	Flügel des Gesanges(노래의 날개 위에)	Sop. 박옥조 Sop. 이숙화 Sop. 박지숙
G. Puccini	E lucevan le stelle(별은 빛나건만) from Opera Tosca	Ten. 김신철 Ten. 오윤수
W.A.Mozart	Dove Sono I Bei Momenti (아름답던 순간들은 어디에) from Opera Le Nozze di Figaro	Sop. 이숙화
A. Lara	Granada	Ten. 강상호 Sop. 조연순 M.S. 차지향
M.W.Balfe	I dreamt I dwelt in marble halls from Opera The Bohemian girl	Sop. 이미란 Ten. 강규완
E.D.Curtis	Non ti scordar di me(나를 잊지 말아요)	Sop. 조연순 Sop. 오지원 Ten. 이현곤
A. Morricone	Nella fantagia(내 환상 속에서)	Sop. 이소연 Sop. 이미란
R. Schumann	Belsatzar(성경: 바빌로니아 최후의 왕)	Ten. 오윤수 Sop. 이숙영 Bar. 최호은
김희갑	향수	Sop. 김종순 Ten. 강상호 Ten. 이현곤
F.Sartori & L.Quarantotto	Time to say goodbye	Bar. 최호은 Ten. 오윤수 Sop. 김종순
G.Rossini	Inflammatu et accensus(최후의 날) from Stabat Mater(성모애가)	지휘 오지원 Solo 이인화 합창 미오칸토